



전주새중앙교회, 설 명절 맞아 따뜻한 나눔 실천

전주새중앙교회는 설명절을 맞아 4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백미 100포를 중화산2동 주민센터에 기탁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나눔은 명절을 앞두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소득 가구와 홀로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됐으며 전달된 백미는 중화산2동주민센터를 통해 모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전주새중앙교회는 평소에도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며,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권희성 기자



전북자치도, 익산역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전북특별자치도가 4일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매일 추진하는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의 일환으로 호남의 교통 관문 익산역에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익산역 광장과 역사 내부에서 익산시, 익산소방서, 한국철도공사(KORAIL),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다중이용시설과 일상생활 사고 예방, 승강기 안전점검을 중심으로 진행했다. 이번 안전문화 확산 활동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안전점검의 날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 홍보를 넘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재난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익산역과 인근 전동시장 등 많은 인파가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도민 행동요령 안내를 병행했다. 현장에서는 다중이용시설과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우리 가족 안전을 지키는 필수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도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일상생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칙도 함께 안내했다. 도는 시기별·계절별로 발생하기 쉬운 안전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추진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김제시, 중대재해 ZERO 한랭질환 예방 캠페인

김제시는 4일 김제 전통시장 일원에서 2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한랭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시 안전재난과가 주관해 김제 전통시장 상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잠시라도 추위에 손을 녹일 수 있는 핫팩을 나눠주는 등 시민들에게 한파 안전의 중요성을 알렸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목외작업 직업군에게 중점적으로 △따뜻한 옷, △따뜻한 쉼터, △따뜻한 물, △작업시간대 조정, △119 신고 등 한파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홍보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삼면교회, 환경을 취약계층 위한 난방유 지원

김제시 환경을 행정복지센터는 삼면교회(목사 황선우)가 지난 2일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난방유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난방유 취약계층 20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난방유 200l를 지원했으며 최근 난방유 가격 상승과 추운 날씨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김흥규 환경영양사는 "난방비 부담으로 힘든 시기에 삼면교회의 따뜻한 나눔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이번 난방유 지원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역 책임 의료기관 역할 강화”

전북대병원, 개원 117주년 기념식... 새 도약 다짐

전북대학교병원이 개원 117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병원의 역사와 성과를 되돌아보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전북대병원(병원장 양중철)은 본관 지하 1층 모약홀에서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11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직원 표창, 장년퇴임 인사, 병원장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는 병원 발전에 기여한 구성원들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우수·모범직원 18명과 10년에서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221명, 협력업체 우수직원 1명, 모범 자원봉사자 1명 등이 표창을 받았다. 진료와 연구 분야 성과에 대한 격려도 이어졌다. 우수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논문상 시상에서 피부과 강태종 전공의가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했다. 우수 논문상은 영상의학과 조형률, 치과보철과 지민주, 피부과 이건중 재활의학과 양어인 정형외과 호지용 전공의에게 돌아갔다. 장년퇴임 인사 시간에는 응급의학과 진영호 교수가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오랜 시간 함께한 병원 생활을 돌아봤다.



양중철 병원장은 기념사에서 "전북대병원은 117년간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는 책임의료기관"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으로서 중증·필수의료를 책임지고,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의료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대병원은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지역 공공의료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성근 기자

원광대 글로벌대학, 지역문제 해결 실천과제 발굴 첫걸음

시민 100명 모여 원탁회의 개최

원광대학교 글로벌대학이 지역사회와 손잡고 익산의 지역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원광대학교 지역혁신본부는 지난 3일 익산 웨스턴라이프 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희망연대와 협력해 '지역X대학 협력, 지역문제 해결 실천과제 발굴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원탁회의에는 지역사회 각 분야의 기관·단체 대표자와 실무자, 시민 등 약 10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약 2시간 동안 주제별 토론과 공감 투표로 통해 지역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참가자들은 아동·청소년과 청년, 노인 원도심 기후환경, 평생교육 등 6개 주제별 테이블로 나뉘어 논의를 진행했다. 지역사회와 대학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해 실제로 추진 가능한 실천 과제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토론 결과 읍·면 지역 노인의 일상생활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가 제안됐다. 어르신과 대학생을 연계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대학 캠퍼스 공간 공유 및 지역사회 개방 방안도 논의됐다.



이와 함께 청년 문화·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과 지역문제 해결형 지원 플랫폼 구축이 제시됐다.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공간 조성하고 익산 시민 대상 대학 강의 청강제 도입, 대학생과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 가꾸기 사업 등도 실천 과제로 도출됐다. 한편 이번 원탁회의를 통해 도출된 실천 과제들은 원광대학교 지역혁신본부의 '해플허슬상점'에서 검토를 거친다. 이후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부안군, 지역 일자리 아우르는 '통합 고용플랫폼' 가동

농가 일자리 지원·고용 미스매치 해소기대

부안군은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도농상생형 고용플랫폼 조성 프로젝트에 선정돼 국·도비 2억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특성과 산업 여건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 개선을 목표로 일손 부족을 겪는 농업인과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를 연계하는 고용플랫폼을 구축해 지역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도비 2억5,000만원에 군비 2억5,000만원을 더한 총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찾아가는 일자리 서비스,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상용 일자리와 농가 일자리를 아우르는 단기 일자리 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가 일자리 지원사업은 농촌인력증가센터 운영 예산 1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인력과 도시 유류 인력



을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내국인을 고용해 농작업을 수행하는 농업인에게는 종식비와 간식비, 도·농축산수당을 지원하고, 농가 일자리를 희망하는 구직자에게는 교통비와 농작업 상해보험 가입비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해에도 부안군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일자리 서비스를 운영해 상용직 근로자 384명과 일용직 근로자 4,600명을 연계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 동충동 발전협, 취약계층 위해 백미 기부

남원시 동충동 발전협회의회는 지난 3일 결식 우려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백미 31포(100만원 상당)를 기부했다. 이번 나눔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식비에 부담을 겪고 있는 가구들의 식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박미리)는 '1일 1가구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직접 취약계층의 안부를 살피고 백미(10kg)를 전달하며,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도 세심히 점검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출력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썼다. 발전협의회 임원장 회장은 "작으로도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꾸준히 도움의 손길을 이어가겠다"고 전했으며, 박미리 동충동장은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실천에 함께해 주신 발전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지원과 민관협력 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라더미싱 대표, 금동에 백미 50포 기탁

남원시 금동 행정복지센터(동장 김봉례)는 부라더미싱 황의형 대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직접 농사 지은 백미(20kg) 50포를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백미는 기부자의 뜻에 따라 남원시복지관(30포), 관내 경로당(10포), 금동 저소득 취약계층(10포)에 전달되며, 황의형 씨는 "직접 농사지은 쌀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어 더욱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이번 기탁은 16년째 이어지고 있는 황의형 대표의 꾸준한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에 훈훈한 귀감이 되고 있다. 김봉례 동장은 황의형 대표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기탁된 쌀은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 밥상을 차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선운산농협 이기형·김미옥 부부 '새농민상'

선운산농협(조합장 김기욱)은 지난 3일 조합원 이기형·김미옥씨 부부가 '이달의 새농민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새농민상'은 농협중앙회가 1965년부터 전국 농축산인을 대상으로 자립·과학·협동의 3대 정신 실천에 앞장서며 농가소득 증진과 과학영농 및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한 농업인 부부에 수여하고 있다. 이기형·김미옥씨 부부는 고창군 공음면 일대에서 양파, 수박, 배추 등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로 26년간 농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역의 청년농부들에게 농업지식과 경험을 전수해주는 등 청년농업인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 넣어 주고 있다. 이기형·김미옥씨 부부는 "새농민회 회원으로서 농업경영 노하우를 청년농업인에게 일일필판이나 지역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고부면, 설 맞이 쌀·흑미 기탁 행렬

정읍시 고부면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의용소방대와 지역 업체가 각각 백미와 흑미를 기탁하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앞장섰다. 먼저 지난 3일 고부면 관청의용소방대(대장 은희상), 남성의용소방대(대장 유내상), 여성의용소방대(대장 유은혜)는 백미 10kg 44포를 고부면에 기탁했다. 이어 같은 날 고부면 소재 늘봄푸드(대표 김대한)도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흑미 4kg 44포를 전달하며 나눔 행렬에 동참했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평소 지역사회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온 단체와 업체가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명절을 맞이한 관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전망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대, '희망2026 나눔캠페인' 성금 전달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연말연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추진된 '희망2026나눔캠페인'에 참여해 총 702만 원의 성금을 모금하고, 이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전북대는 지난 12월부터 최근까지 나눔캠페인 모금을 전개해 왔다. 양오봉 총장을 비롯한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데 뜻을 모아 십시일반 동참했다. 모금된 성금은 전북지역 내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양오봉 총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대학 구성원들의 마음이 모여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북대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립대학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춘 기자

순창발효관광재단, 전주대 RISE 사업단 감사패

순창발효관광재단이 지역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발효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재단은 지난 3일 전주 더 메이호텔에서 열린 전주대학교 RISE사업단 성과공유·미래협력포럼'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전주대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해 RISE 사업의 일환으로 '순창 발효문화'를 접목한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며 지역사회 협력 제고와 전문 인재 양성에 앞장섰다. 특히 △2025 순창 코리아 떡볶이 페스티벌 △순창 생지 알콩달콩 축제 △순창 동계 밤올림픽 등은 순창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살리면서, 지역 특산품의 홍보와 판매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축재 아카데미'를 운영해 지역민이 직접 참여하고, 전주대학교 자원봉사자들이 서포터즈로 활동함으로써 진정한 산학협력의 모범 사례를 제시한 점도 주목받았다. /순창=이양원 기자